



식목일 유래를 알고 꿈나무를 심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4월 5일은 제78회 식목일이다. 식목일은 국민식수(國民植樹)에 의한 애...

식목일의 유래는 미국의 네브래스카주에서 산림이 헐벗은 것을 본 개척...

우리나라 4월 5일 식목일 유래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민족이 일...

이날은 청명과 한식날이 겹치거나 전후하여 있으므로 조상에게 성묘하...

제1회 식목일 행사는 1946년 4월 5일에 서울 사직공원에서 서울시 주관...

그 뒤 1960년에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면서 공휴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산림이 크게 훼손당한 일이 있...

다행히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화정책이 수립되고 연료가 무연탄...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른 숲 마을 가꾸기도 중요...

나무를 심는 것은 나의 꿈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나의 꿈이 이뤄질까 같...

칼럼

장흥군에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와 지지를 바라며

기고

오병찬 장흥군 주민복지과장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일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흥군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전복 임실호국원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전에 적극 뛰어 들었다.

장흥군은 지난해 말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를 위해 정부에 사업을 건의했다.

최근에는 국립묘지를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 즉 가족공원으로 생각하는 주민 의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소 2만기 이상 안장 규모의 국립호국원을 장흥군에 들어서게 되면 매년 40만 명에 가까운 유동 인구가 발생한다.

장흥군에 국립 전남호국원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단합된 분위기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onam News,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예방하자

기고

조우양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사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위력을 앞세운 금품 갈취나 폭력, 채용 강요 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찰은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 제감약속 3호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이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 또는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이루어져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